



인천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토지구획사업, 아파트 건설 등 크고 작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활발한 발굴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인천 내륙에서 인천 최초로 구석기시대 문화층이 정식 조사되었고, 영종도에서는 정주생활을 하였던 대규모 신석기시대 마을과 집터가 발견되어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는 등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조사 되었습니다.

검단선사박물관에서는 2013년 특별전으로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지역의 발굴이 가진 의미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인천발굴성과전”을 기획 하였습니다. 전시는 최근에 이루어진 인천 발굴의 성과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2013년에 개최되는 1차 전시는 인천의 구석기~초기철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고자 하며, 2차 전시는 철기~삼국시대의 인천과 그 주변지역의 문화상을 돌아볼 예정 입니다.



◀ 빗살무늬토기
중산동 유적 3구역 21지점
29호 주거지



교통안내

▪ 버스 이용시 (원당사거리 하차)

시내버스 : 13, 13-2, 30, 76, 78, 308, 841, 841-1, 1002, 1100, 1101
※ 자세한 버스노선은 검단선사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 지하철 이용시

인천지하철 1호선 : 계양역 또는 굴현역 하차 → 버스 30번 또는 841번 승차
→ 원당사거리 하차
공항철도 : 계양역 하차 → 버스 30번 또는 841번 승차 → 원당사거리 하차

▪ 자동차 이용시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
서인천IC → 서구청 → 원정사거리(우회전) → 원당사거리(좌회전) → 검단선사박물관
외곽순환도로 이용
계양IC(계양방면) → 용종사거리 또는 임학사거리(우회전) → 검단선사박물관
봉수대로 이용
봉수대로(청라, 인천국제공항 방면) → 원당대로사거리(우회전, 김포방면) → 검단선사박물관

찾아오시는 길



관람안내

관람시간	개관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입장마감	오후 5시 30분		
	정기휴관	월요일, 공휴일 다음 날		
관람료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무료
	일반 (19~64세)	400원	200원	· 18세 이하 65세 이상 및 장애인 · 국가유공자와 동반보호자
	군인	200원	100원	



인천발굴성과전 I

발굴로 본 인천의 선사유물 이야기

인천, 발굴? 선사!

2013. 8. 6^{TUE} ~ 12. 15^{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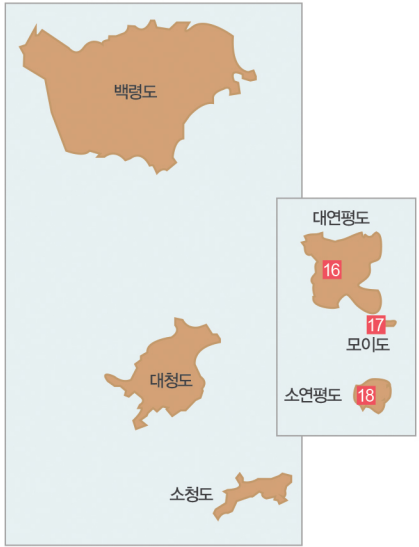
전시장소 :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협조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중앙박물관 / 당진시청 / 서경문화재연구원
서울대학교박물관 /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전곡선사박물관
중앙문화재연구원 /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년 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인천발굴성과전 I

발굴로 본 인천의 선사유물 이야기



인천
선사 발굴
유적지

- | | |
|--------------|-------------------|
| 1 불로동 유적 | 10 중산동 유적(3구역) |
| 2 원당동 유적 | 11 중산동 유적(4구역) |
| 3 경서동 유적 | 12 송산 유적 |
| 4 구월동 유적 | 13 을왕동 유적 |
| 5 운북동 유적 | 14 을왕동 I 유적 |
| 6 운서동 I 유적 | 15 남북동 유적 |
| 7 운서동 II 유적 | 16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 유적 |
| 8 운서동 III 유적 | 17 모이도 패총 유적 |
| 9 삼목도 III 유적 | 18 소연평도 패총 유적 |

인천의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 및 성과

인천지역은 2000년대 이후부터 청동기시대 인천지역의 생활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적들이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은 서구, 계양구, 중구, 남동구 등 인천의 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초기(BC 15~12세기)는 동양동, 운서동 유적 등에서 짧은 사선무늬검입술토기와 덧띠토기 등이 긴 네모꼴 주거지에서 출토되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전기(BC 11~8세기)에 해당하는 마을유적으로는 검단동, 원당동, 구월동 등에서 구멍무늬토기 등이 출토되는 긴 네모꼴 주거지들이 있다. 청동기시대 후기(BC 7~4세기)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중산동, 구월동, 원당동 유적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중산동 유적에서는 34채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대체로 후기에 해당되는 소형의 네모꼴 주거지들로, 여기에서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 두드림무늬토기(原始打捺文土器), 일단순잡이 돌검, 돌화살촉, 흙자귀 등이 출토되었다. 구월동 유적에서는 주로 경기 이남지역에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주거 유형으로 알려진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주거 유형이 한강유역에도 존재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대체로 인천지역의 청동기시대 마을유적에서는 석기의 출토 비율이 토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검단동과 원당동 유적에서 망치돌의 출토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석기 제작이 비교적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천의 구석기시대 유적 발굴 및 성과

인천의 구석기시대 유물은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시 주변지역으로부터 확인되는 수준이며 발굴된 유적도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원당동과 불로동 등에서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었고, 최근(2012) 가정동 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발굴과정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발굴되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되었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의 단일 유적보다는 타 시대 유적과 함께 발견된 것들이며, 출토된 구석기의 재질은 석영이나 규암으로 비교적 거친 석재를 단순하게 가공한 편이다. 현재 인천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유적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늦은 시기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 가정동 유적 1차 발굴조사 원료 전경



◀ 가정동 유적 주먹도끼

인천의 신석기시대 유적 발굴 및 성과

인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일제 강점기부터 알려졌으나 1970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한 '시도패총' 발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영종도 일대 개발로 인해 대규모 마을유적이 집중적으로 발굴조사 되었다. 현재 인천에는 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100여 곳의 신석기시대 유적이 알려져 있다. 특히 영종도 일대는 크고 작은 마을과 조개무지, 야외 화덕자리 등의 유적이 밀집되어 있어 당시 신석기인의 삶이 투영되어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에 본격적인 신석기문화가 시작되는 것은 해안에 갯벌이 형성되고 강 하구의 지형이 안정되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기원전 5,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즉, 바다로부터 풍부한 먹거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지역은 신석기인들의 삶에 주요한 터전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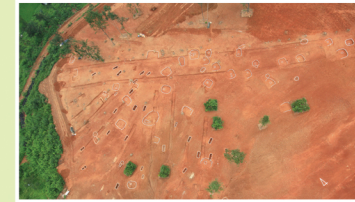
▼ 운서동 유적 I 2지점 3호 주거지



▼ 모이도 패총 단면 층위



▼ 중산동 3구역 청동기 마을유적



▼ 경서동 유적 청동기 석곽묘와 주거지

